펼쳐지는 MLB 협상 테이블…이정후, '꿈의 무대'로 향한다

KBO, MLB 사무국에 이정후 포스팅 요청

양키스·샌프란시스코 등 20개 구단 관심

이정후(25)가 꿈의 무대로 불리는 메이저리그(MLB)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머지않아 MLB 협상 테이블이 차려진다.

이정후는 2022시즌이 끝난 뒤 빅리그 도전을 선언했고, 올해 1월 말에 MLB의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와 손을 잡았다. 2017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1차 지명으로 입단해 KBO리그에서 7시즌을 채운 이정후는 이번 겨울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MLB 진출을 노린다.

MLB 사무국은 지난 15일(한국시간) 이정후에 대한 신분 조회를 요청했다. 키움 구단은 22일 이정후의 의료 기록 등 포스팅 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KBO에 제출했고, KBO는 24일 이정후를 MLB 30개 구단에 포스팅해 줄 것을 MLB 사무국에 요청했다.

미국은 24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정후의 포스팅은 1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MLB 진출 절차가 본격화됐고,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시간도 임박했다.

MLB 30개 구단은 MLB 사무국이 포스팅을 고지한 다음 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오후 5시까지 이정후와 계약 협상이 가능하다. 계약을 맺은 구단은 한·미선수계약협정에 따른 이적료를 이정후의 원소속팀 키움에 지급해야 한다.

협상 만료일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포스팅은 종료된다. 이 경우 이정후는 다음 해 11월1일까지 포스팅될 수 없고, 내년 시즌에 키움 소속으로 KBO리그에서 뛰어야 한다. 이후 프리에이전트(FA) 또는 구단의 허락을 받고 재차 포스팅 시스템으로 MLB 문을 두드려야 한다.

하지만 미국 현지의 반응을 보면 이정후가 MLB 구단과 계약하지 못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번 겨울 오타니 쇼헤이, 블레이크 스넬, 코디 벨린저,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 스타 선수들과 함께 주요 FA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MLB 구단은 이정후의 젊은 나이와 뛰어난 컨택 능력, 준수한 수비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정후는 KBO리그 통산 884경기에서 타율 0.340 1181안타 65홈런 515타점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는 타격 5관왕(타율·최다안타·타점·출루율·장타율)에 오르면서 데뷔 첫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외야 강화를 원하는 뉴욕 양키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존 모로시 기자는 MLB 전문 방송 채널인 MLB 네트워크에 출연해 "양키스와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피트 푸틸라 샌프란시스코 단장은 지난달 키움의 홈구장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이정후를 면밀히 확인했다. MLB닷컴은 이정후를 "흥미로운 중견수 옵션"이라고 소개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영입 후보로 언급하기도 해다.

이정후에 앞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포스팅 시스템을 거쳐 빅리그 무대를 밟았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28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김하성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정후가 김하성보다 더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후는 빅리그에서 꽃길을 걷고 있는 김하성의 뒤를 이을 준비를 마쳤다.

뉴시스

LG, 서건창·송은범 등 12명 보류선수 제외…정주현 은퇴

외야수 이천웅·투수 임정우도 방출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선수단 정리를 위해 선수 12명을 방출했다.

LG는 25일 "선수단 정리 작업을 통해 투수 송은범, 이찬혁, 김태형, 성재헌, 임정우, 내야수 서건창, 정주현, 김성협, 최현준, 외야수 이천웅, 최민창, 이철민 등 12명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 정주현은 은퇴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서건창이다. 2008년 LG 유니폼을 입고 1군에 데뷔한 서건창은 올해까지 KBO리그에서 13시즌을 뛰었다. 1군 통산 125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7 1365안타 39홈런 491타점 229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781을 기록했다.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던 2014시즌에는 안타 201개를 때려내며 리그 최초로 200안타 고지를 밟았고,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했다.

그러나 서건창은 타율 0.277에 머무른 2020시즌부터 내리막을 탔고, 2021시즌을 마친 뒤 처음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었으나 부진한 성적(타율 0.253) 등을 고려해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2022시즌에도 부상 여파 등으로 고전한 서건창은 77경기 타율 0.224 2홈런 18타점에 그쳤다. 'FA 삼수'를 택한 서건창은 올해 부상과 부진 속에 44경기 타율 0.200 12타점을 기록,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남겼다. 이번 FA 신청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결국 LG를 떠나게 됐다.

KBO리그에서 21시즌 동안 활약한 베테랑 투수 송은범도 보류선수 명단에서 빠졌다. 2003년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에서 처음 1군 마운드를 밟은 송은범은 KIA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 LG를 거쳤고 통산 680경기 88승 95패 27세이브 57홀드 평균자책점 4.57의 성적을 냈다.

2019년 LG로 트레이드된 후 서서히 등판 횟수가 줄어든 송은범은 올해 4경기 출장이 전부였다.

서건창

뉴시스

허연경, 또 女자유형 100m 한국新

황선우, 남 100m 출전권 획득 실패

수영 국가대표 허연경(17·방산고3)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후 약 2개월 만에 여자 자유형 100m 한국 기록을 또 새로 썼다.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허연경은 25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4 수영(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여자 일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한국 신기록인 54초49로 우승했다.

허연경은 지난 9월26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 종목 결승에서 수립한 한국기록 54초70을 61일 만에 0.21초 단축하며 올해만 6번째 한국 기록을 작성했다.

이 기록은 여자 자유형 100m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 기준기록에는 0.24초 모자란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맹은 "연맹 자체 기준기록보다는 빨라 추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후 허연경은 연맹과 인터뷰에서 "전국체육대회 이후 휴식 없이 훈련을 이어가려니 아무래도 지쳐서 연습 때 100% 따라가지 못해 경기장 오기 직전까지 스트레스가 컸는데 전날 예선에서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와 자신감이 생겼다"며 "김효열 코치님이 저를 계속 믿어주셨고 저도 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으로 임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남자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는 황선우(20·강원도청)가 48초57로 1위에 올랐지만 국제연맹 A 기준기록에 0.06초 모자라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황선우는 27일 오후 예정된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노린다.

황선우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컨디션을 100%로 끌어올릴 정도로 하지 않아 이번 대회 기록이 제 개인 기록에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1위로 마무리하며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데 좋은 발판이 된 것 같다"며 "이틀 뒤에 열리는 자유형 200m 결승 경기에도 기록보다는 내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열심히 레이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중장거리 간판 김우민(22·강원도청)은 남자 자유형 800m 결승에서 국제연맹(AQUA)의 A기준기록 7분53초11보다 0.27초 빠른 7분52초84로 우승하며 2019 광주 대회부터 4회 연속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을 확정했다.

김우민은 2019 광주 대회 때는 자유형 1500m에만 출전했지만 이후 2022 부다페스트와 2023 후쿠오카 대회에서는 2회 연속 자유형 800m 14위에 올랐다.

김우민은 전날 남자 배영 200m에서 우승한 이주호(28·서귀포시청)에 이어 남자부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우민은 올댓스포츠를 통해 "내년에 있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 치렀던 레이스처럼 자유형 800m에서는 초반에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고 후반 스퍼트를 보강한다면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남은 자유형 200m와 자유형 400m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여자부 간판 김서영(29·경북도청)도 이날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서 2분12초12로 우승하며 국제연맹 기준기록을 통과해 2017년부터 5회 연속 세계수영선수권 출전을 확정했다.

김서영은 "원래 2년에 한 번씩 열리던 세계수영선수권이 코로나19 이후 매해 열리고 있어 강행군이기는 하지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손흥민은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공격수"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어…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즐겁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토트넘)을 세계 5위 안에 드는 공격수라고 극찬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25일(한국시간) 독일 매체 키커와 가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며 "9번 역할이나 윙 포지션, 또는 센터포워드 뒤 10번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절대적으로 뛰어난 선수이며 세계 축구에서 공격수 중 상위 5위 안에 든다"며 "지금은 토트넘의 주장이고 한국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즐겁다"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토트넘을 떠나 손흥민과 헤어진 골잡이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리로이 자네와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봤다. 그는 "모든 센터 포워드는 그런 팀 동료를 원한다"고 짚었다.

노리치 감독 "황의조, 결승골로 뛰어난 선수임 증명"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QPR전서 전반 21분 결승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노리치 시티의 사령탑인 다비트 바그너 감독이 결승골로 팀 승리를 이끈 황의조를 칭찬했다.

노리치 시티는 26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퀸즈파크 레인저스(QPR)와의 2023~2024시즌 챔피언십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2연승을 달린 노리치는 리그 13위(승점 23)로 올라섰다.

해결사는 황의조였다. 전반 21분 팀 동료인 가브리엘 사라의 패스를 받은 뒤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시즌 2호골에 성공한 황의조는 득점 후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쉿 세리머니'를 했다.

국내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선발로 내세운 노리치의 와그너 감독은 경기 후 "황의조에겐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득점으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는 뛰어난 기술과 직업 윤리를 갖고 있다"며 "경기를 잘 이해하고 있고, 멋진 골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11월 A매치를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갔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형수는 구속됐다.